

## 15분 모의고사 3회 정답 및 해설

(0806 모의평가)

### 문법

1.② 2.③ 3.④

#### 1. 비판적 사고(고쳐쓰기)

정답해설 : 우주에서 우주인이 운동을 하여야 할 필요성을 밝히고 있는 (가)는 고쳐쓰기 이전의 글이고 (나)는 (가)의 내용은 그대로 둔 채 표현상 잘못된 부분을 고쳐쓴 글이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두 글을 비교하여 고쳐쓰기 과정에서 검토된 사항을 추리해야 한다. 이렇게 두 글을 비교할 때 (가)에서 ②에 제시된 어색한 번역 투의 피동 표현을 발견하기 어렵다. 어색한 번역 투의 피동 표현이란 '~되어졌다' 식의 표현을 많이 사용하는 경우에 적용될 수 있다.

[답] ②

[오답피하기] ① (가)의 셋째 문장은 분량으로 볼 때 상당히 길게 느껴진다. (나)에서는 이 문장을 둘로 나누어 주고 있으므로 고쳐쓰기의 검토 사항으로 볼 수 있다. ③ (가)의 첫 문장에서 몸을 고정시키는 장소가 제시되지 않았다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나)에서 '운동 기기에'라는 부사어를 추가하고 있으므로 검토된 사항으로 볼 수 있다. ④ (나)의 셋째 문장을 보면 (가)에 나와 있지 않던 '그런데'라는 접속어가 추가되어 있음을 발견할 수 있으므로 고쳐쓰기 과정에서 검토된 사항으로 볼 수 있다. ⑤ (가)의 첫 문장에 나온 '고착'은 '물건 같은 것이 굳게 들러붙어 있음'을 의미하는 단어이므로, 사람에게 사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나)에서는 이를 '고정'으로 바꾸었으므로 고쳐쓰기 과정에서 검토한 사항으로 볼 수 있다.

#### ★ 생각하자

작문의 '고쳐쓰기' 문제인데, 14~16학년도 기출 문법에 자주 출제되었던 '잘못된 문장 수정하기' 패턴으로 풀어내면 된다.

1. 수정 전과 수정 후를 비교
2. 달라진 점 밀줄
3. 선택지에서 수정의 근거 찾기

다만, 이 문항에서 우리가 꼭 점검해야 할 부분은 ③번을 찾아낼 수 있는냐는 것이다. 즉, 부사어가 필수성분일 경우 수정할 때 첨가를 해주는데 이 부분을 찾아낼 수 있어야 필수성분, 서술어자릿수, 문형정보의 문법 개념을 정복한 것이다. 반드시 점검하도록!!

#### 2. 어휘·어법(어휘의 특성 이해)

정답해설 : <보기>에는 세 가지 정보가 제시되고 있는데, '쇠고기'와 '소고기'는 두 어휘를 모두 표준어로 인정하는 복수 표준어라는 사실, '쇠고기'라는 단어가 형성되는 과정에서의 구조적 특징에 관한 사실, '돼지고기'라는 단어가 형성되

는 과정에서의 구조적 특징에 관한 사실이다. <보기>에는 관형격 조사 '의'에 관한 언급도 있는데, 관형격 조사란 '문장 안에서, 앞에 오는 체언이 뒤에 오는 체언의 관형어임을 보이는 조사'이다. 즉 앞의 체언(명사, 대명사, 수사)이 뒤에 오는 체언을 꾸며주는 역할을 하도록 만드는 조사를 의미한다. 이 정보를 바탕으로 이해한 내용 중 ③은 적절하지 않은 사항이다. 구조로 볼 때 쇠고기는 '쇼+익+고기'로 '명사+관형격 조사+명사'의 구조이며, 돼지고기 역시 '돌+익+고기'로 유사한 구조를 갖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이다. [답] ③

[오답피하기] ① '쇠고기'는 '쇼+익+고기'로 형성되었는데, '익'는 현대어로 '의'이므로 '소의 고기'라고 그 의미를 이해하는 것은 적절하다. ② '쇠고기'는 명사인 '쇼', 조사인 '익', 명사인 '고기'로 형성되었으므로 세 단어가 결합되어 한 단어로 발달한 경우로 볼 수 있다. ④ <보기>의 내용에 따르면 '쇠고기'는 '소의 고기'를 뜻하는 말이지만, '소고기'는 동물 이름 '소'에 바로 '고기'를 붙여서 만든 단어라고 할 수 있다. ⑤ '쇠고기'와 '돼지고기'가 만들어진 과정을 고려할 때, '명사+관형격 조사+명사'의 구조가 그대로 사용되었다면 '돌+익+고기', 즉 '들리고기'로 만들어졌을 것이라는 점을 추리할 수 있다.

#### ★ 생각하자

중세국어의 조사가 나오면 이형태에 대해 출제된다. 하도 많이 봐서 알겠지만, 관형격조사(의)는 중세때 이형태가 무려 3개였다.

모음조화에 따라 익 / 의 가 있었고 이러한 것들은 선형 체언이 유정명사(사람이나 동물)일 때만 쓸 수 있었다. 그래서 무정명사 뒤에는 시이 쓰였는데, 예외적으로 극존칭의 유정명사(부처나 세존 등) 뒤에도 시이 쓰였다는 사실!! 여기에 하나 더하면 끝관왕을 깨는 건데 할 수 있겠지?

익/의가 만약에 무정명사 뒤에 사용되면, 관형격 조사가 아니라 부사격 조사 '에'로 해석하면 된다는 것! 관형격조사의 이형태 끝관왕 마스터!ㄱ

#### 3. 어휘·어법(자료를 통한 어법 사용의 이해)

정답해설 : <보기 1>은 '-마는'과 '-만은'의 문법적 성질 차이를 밝힌 것이고, <보기 2>는 '-마는'과 '-만은'을 실제 문장에 적용한 사례이다. <보기 1>을 통해 '-마는'의 경우 종결어미 뒤에 붙으며, '-만은'은 어미, 체언, 조사에 다 붙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를 <보기 2>에 적용했을 때 빈 칸에 '-마는'이 들어가야 할 경우는 '-마는'의 앞에 종결어미가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파악해야 한다. 우리 문법에서 종결 어미는 '한 문장을 종결되게 하는 어말 어미'를 가리킨다. 그리고 그 종류로는 동사에 평서형 종결어미, 감탄형 종결어미, 의문형 종결어미, 명령형 종결어미, 청유형

종결어미가 있고, 형용사에는 평서형 종결어미, 감탄형 종결어미, 의문형 종결어미가 있다. 그러므로 <보기2>의 ㉠ ~ ㉣ 중 그 앞에 종결 어미가 들어갈 수 있는 경우를 찾으면 된다. ㉠의 경우, '오늘은 그냥 간다'의 '간다'에는 평서형 종결어미 '-니다'가 사용되었으므로 '-마는'을 넣을 수 있다. 또 ㉣의 '되겠느냐' 역시 '-느냐'라는 물음을 나타내는 종결어미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그 뒤에 '-마는'을 넣을 수 있다. 그러므로 '-마는'이 들어갈 것은 ㉠와 ㉣라고 할 수 있다. [답] ㉣

[오답피하기] ㉠ ㉡의 경우, '가서'의 '-서'는 종결어미가 아니라 연결어미이므로 '-마는'을 넣을 수 없다. ㉢ ㉣의 경우, '땀한 가지'의 '가지'는 명사이므로, '-마는'이 아니라 '-만은'이 들어가야 한다고 볼 수 있다.

★ **생각하자**

설마! 이거 해대면서 풀이한 건 아니겠지?  
 봐라! 보기1의 위에 거를 ㄱ으로 쓰고 밑에 거를 s으로 표시해봐. 그럼 -마는과 -만은의 차이는 체언이나 조사 뒤에는 -만은이 들어간다는 거 알겠지? 그럼c는 지워지고, 이제 의미적으로 접근하면 -마는은 양보의 의미, -만은은 '만'이 붙어 있으니까 단독의 의미로 볼 수 있지. 이렇게 의미로 풀어버리면 끝.  
 이런 어미와 보조사의 쓰임을 묻는 문제는 체언부터 지워야 깔끔하게 풀 수 있다. (체언 뒤에 붙으면 딱치고 조사!)

**독서**

4.㉡ 5.㉣ 6.㉠

**[4-6] 언어, '소쉬르의 공시대 개념'**

지문해설 : 이 글은 공시대를 시간의 개념이 완전히 배제된 정적인 상태로 본 소쉬르의 언어학적 견해에 대해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완벽하게 정적인 상태라는 것이 실제로 현실에서 존재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정태와 공시대를 동의어로 본 소쉬르의 견해는 오류라는 것이다. 따라서 언어의 기능을 기술할 때에도 그 언어가 변화하고 있는 중임을 유념해야 한다는 보고 있다.

[주제] 소쉬르의 공시대 개념과 그것의 문제점

★ **생각하자**

제재 선정 이유: 독서 영역에서 과학, 기술, 경제의 제재가 어렵다고 하지만, 실제로 시험장에서 가장 시간이 많이 걸리는 제재는 인문이다. 특히 이렇게 언어학이 나오면 굉장히 추상적인 글이기 때문에 이해가 어렵다. 특정 개념어를 중심으로 정리하면서 빠르게 읽는 것이 중요하다.

**4. 비판적 사고(구체적인 논거의 제시)**

정답해설 : 파울은 언어를 진화하고 변화하는 대상으로 보기

때문에, 언어 연구에는 언어가 역사적으로 발달해 온 방식에 대한 고찰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본다. 그러나 소쉬르는 언어가 역사적인 산물이라 하더라도 변화 이전과 변화 이후를 구별해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언어는 구성 요소의 순간 상태 이외에는 어떤 것에 의해서도 규정될 수 없는 가치 체계이므로, 소쉬르는 화자가 발화한 당시의 언어 상태를 연구 대상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할 것이다. [답] ㉡

★ **생각하자**

수능 패턴 문항: 학자가 두 명이상 나오면 무조건 비교, 대조 문제 나온다.  
 - 예전 패턴은 이 문항처럼 차이점을 묻지만, 최근 패턴은 공통점을 묻는다. 지문을 읽으면서 꼭 찾아 놓고 답을 빠르게 선택하자!

**5. 추론적 사고(구체적 사례에의 적용)**

정답해설 : 본문에 제시된 공시태와 통시태의 개념을 '좁쌀'이라는 단어에 적용시켜 보는 문제이다. 공시태는 동시성의 축을 말하고, 통시태는 한 상태에서 다른 상태로의 이행을 말한다. 따라서 '조쌀'이 음운 변화를 거쳐 '좁쌀'이 된 것은 통시적 연구(㉣)이고,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좁쌀'과 중세 때 사용한 '조쌀'은 각각 그 당시의 언어 현상에서 바라보는 공시적 연구(㉠, ㉡) 대상이다. 그런 의미에서 '쌀'은 중세 국어에서의 공시태이고, '쌀'은 현대 국어에서의 공시태라 할 수 있다. [답] ㉣

[오답피하기] ㉡ '좁쌀'은 현대 국어의 공시태이므로, '좁쌀'에서의 'ㅁ'이 '쌀'의 흔적이라는 것을 알 수 없다.

★ **생각하자**

ㅁ계 합용병서자는 원래 음가가 있었다. 그 증거가 좁쌀!! (조ㅎ+쌀) 지식으로 알아 둘 것!  
 다만 이 문제에서는 공시대, 통시대 개념만 이해하면 끝!

**6. 추론적 사고(중심 개념의 비유적 표현)**

정답해설 : 언어는 변화하는 것이므로 시간의 개념이 완전히 배제된 '정적인 상태'라는 것은 현실에서 존재하기 어렵다. 그런데 소쉬르는 '공시대(㉠)'를 시간의 개념이 완전히 배제된 '정태(㉡)'로 보았다. 언어는 '날아가는 화살'처럼 어느 한 순간만을 보면 정지되어 있는 '정태'로 보이지만, 정지되어 있다고 보는 그 순간에도 계속 움직이고 있는 '공시대'로서의 개념을 소쉬르는 간과했던 것이다. [답] ㉠

[오답피하기] ㉡ (라)에서 언어는 계속 변화하고 있는 중이라고 했으므로, 변화하다가 어느 시점이 되면 고정되어 버리는 사례는 적절하지 않다. ㉣ 악보에 있는 '음표'라는 기호를 실현한 것이 '소리'이다. ㉤ '산'이라는 것은 변하지 않는 대상으로, 그 대상을 보는 주체에 따라 다르게 볼 수 있는 경

우에 해당한다.

★ **생각하자**

와! 이문제는 진짜 허점을 찌르는 예리한 문제다. 솔직히 글 읽으면서 정태, 공시대 차이점 구분 안 했지? 그니까 (라) 문단에서 왜 야콥슨이 소쉬르를 비판하는지를 찾으려면 새로운 개념어인 정태를 이해해야 한다. (라)의 2번째 줄에 ‘공시태를 정적인 상태, 즉 정태와 동일시하였던 점을 비판’이라고 나와 있으니, 정태는 정적인 상태, 공시태는 동적인 상태라는 걸 눈치챘어야 해! 지문은 반드시 끝까지 집중력 유지하고 읽자!

**문 학**

7.③ 8.④ 9.④ 10.⑤

[7-10] **현대소설, 박태원, ‘소설가 구보 씨의 일일’**

작품해설 : 이 작품은 제목처럼 어느 하루 동안에 벌어진 구보 씨의 일과를 서술한 박태원의 중편 소설로서 ‘집을 나섬 → 돌아다님 → 귀가’의 노정을 따르고 있다. 이 작품에서 ‘구보 씨’는 무기력한 한 지식인(소설가)의 전형으로 그려지고 있다. ‘전차 안 → 다방 → 거리 → 경성역 대합실 → 다방 → 거리 → 술집’으로 전전하며 그가 지켜본 일상의 풍경은 1930년대 조선의 세태를 잘 반영해 놓고 있다. 이 과정에서 세태 묘사와 더불어 중간중간에 인물의 복잡한 내면 심리가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잘 표출되어 나타난다. 이 작품에는 1930년대에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전통 사회의 따뜻한 인간미가 상실되어 가는 모습 및 그 속에서 도시인들이 느끼는 고독감이 잘 나타나 있다. 이 작품은 인물의 내면 의식이 두서 없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사건이나 행위, 갈등은 중요한 의미를 갖지 못한다. 또한 이 작품에 사용된 의식의 흐름이나 몽타주 기법 등의 모더니즘 소설 기법들은 연관성 없는 내면 의식을 보여주기 위한 효과적인 장치로 활용되고 있다. 여기 제시된 장면은 구보 씨가 다방에서 친구를 기다리다가 평소 왕래가 없던 중학교 동창 및 그의 동료를 만나 당시의 걸작이나 원고료 등 달갑지 않은 화제로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다.

[주제] 1930년대 소설가의 눈에 비친 도시의 일상사

★ **생각하자**

수능특강에 있어서 선정했다. 소설가 구보씨만 나오면 구보랑 같이 의식 흘러가는 친구들 있는데, 그럼 안 되는 거 알지? 의식의 흐름 기법이긴 하지만, 소설이니까 인물과 사건과 갈등이 나온다는 거 잊지말고 분석하면서 읽자.

**7. 비판적 사고(서술상의 특징 파악)**

정답해설 : 이 글은 구보 씨가 다방에서 벗을 기다리던 중에 평소 왕래가 없으면서도 아는 체를 하는 중학교 동창 및 그의 동료를 만나 썩 내키지 않는 화제로 대화를 나누다가 문

을 들어서는 벗과 함께 다방에서 벗어나는 장면이다. 여기 제시된 지문만 놓고 보면 시간적 순서에 따라 사건을 배열하고 있지만, 주인공인 구보 씨의 내면 의식이 의식의 흐름에 따라 두서없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사건의 인과성은 잘 드러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이 작품이 시간적 순서에 따른 사건 배열을 통해 사건의 인과성을 밝히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답] ③

[오답피하기] ① 이 글은 ‘다방’이라는 제한된 공간에서의 만남과 작가의 원고료에 대한 대화를 통해 세태를 암시하고 있다. ② 이 글의 서술부는 전반적으로 과거형 어미로 진술되고 있으나, 인물의 내면을 제시하는 문장만큼은 현재형 어미를 사용하여 생동감 있게 제시하고 있다. ④ 이 글의 대화 부분은 직접 화법과 간접 화법이 뒤섞여 있는데, 이를 통해 등장 인물 간의 심리적 거리를 조절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⑤ ‘참, 최 군, 인사하지. 소설가 구포 씨.’, ‘밖에, 여름 밤, 가벼운 바람이 상쾌하다.’처럼 쟁표를 의도적으로 사용하여 읽기 속도에 변화를 줌으로써 그 부분에 주목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 **생각하자**

위 글에 대한 설명? 뭘 묻는다고? 그래. 소설의 형식을 묻는거라고!! (서술상 특징=시점, 서술방식, 구성, 문체!!) 그런데 이문제는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는 걸 묻는거니까 부분적으로 드러나있는 서술상 특징을 묻는 거지. ②번 때문에 고민 많이 했을텐데, 소설은 대체로 과거형 어미를 쓰지? 그런데 지문에 보면 ‘아무런 의무도 갖지 않는다’처럼 부분적으로 현재시제를 쓰고 있어. 그럼 효과는 뭐? 생생함, 생동감, 현장감 끝.

⑤번 같은 거는 박태원 문체 특징이니까 지식으로 알아둬도 되고, 아니면 지문에서 찾아도 되고!

**8. 추론적 사고(인물의 심리적 태도 추론)**

정답해설 : 이 글에서 구보는 오랜만에 만난 친구인 ‘사내’를 썩 마음에 들어 하지 않기 때문에 억지로 함석하여 대화를 나눈다. 따라서 ㉠에 나타난 구보의 태도는 상대방처럼 되지 못하는 자신을 비웃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작품을 남들에게 선전한다고 거들먹거리는 상대방을 자신의 독자 권유원으로 삼으면 몇 백 명의 독자를 획득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난데없이 생각한 자신의 내면 의식에 대해 스스로 유치하다고 여기며 어이없게 웃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답] ④

[오답피하기] ① 다방 안의 모든 사람의 시선을 온몸에 느낀다는 것은 창피스러움과 당혹스러움 때문에 그런 것으로 볼 수 있다. ② ‘고개를 돌렸다’는 것은 상대방에 대한 거부감을 드러내는 태도라 할 수 있다. ③ ‘게으르게나마’ 자리에서 일어났다는 것은 내키지 않지만 억지로 행동하는 심리를 드러낸 것이라 할 수 있다. ⑤ ‘간신히’라는 부사로 볼 때, 구보가 상대방의 말에 동의하지 않으면서도 마지못해 인정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생각하자**

아.. 중요한 문제다.. 소설에서 내용이해 문제 중에 가장 어렵고 풀기 애매한 문제..

바로! 밑줄 친 부분=인물의 대사나 행동 - 선택지=인물의 심리, 태도 추론하는 문제!

이런 문제는 밑줄 친 부분 앞뒤 읽고, 선택지 읽으면서 '그렇게 느낄 수 있어'처럼 유연하게 생각해야 해. 문학이 어려운 건 이러한 유연성의 문제지. 르앞에 읽어보면 구보가 무지한 사내를 채용해서 몇 백명의 독자를 획득해볼까 하고 의식의 흐름하다가 혼자 웃어버리지? 왜 웃었을까? 말도 안되는 상상이니까 스스로가 유치했겠지. ④번처럼 상대방처럼 되지 못하는 자신을 비웃는 건 절대 아닌거지.

간접제시를 통한 인물의 심리, 태도 추론하는 문제 어떻게 풀다고? '유연하게 생각하자!'

9. **창의적 사고(시점을 바꿔 서술하기)**

정답해설 : <보기>에 제시된 (가)와 (나)는 모두 전지적 작가 시점에 해당하는 그림이므로 1인칭 시점으로 서술된 ①, ②는 제외하고 답을 골라야 한다. (가)의 시점은 전지적 서술자가 구보의 입장에서 '사내'의 심리를 추정하여 서술하는 시점이다. 반면 (나)의 시점은 모든 인물의 심리를 다 알고 있는 전지적 서술자가 직접 '사내'의 심리와 '구보'의 심리를 서술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즉, '그 사내는 구보가 공손하게 말하는 것을 지켜보면서 특이에 찬 듯한 표정을 지었다'고 하여, 서술자가 관찰만 하고 있을 뿐 '사내'의 내면 심리를 모르고 있는 듯이 서술한 ③은 (나)의 시점에 어울리지 않는다. 따라서 서술자가 '사내'와 '구보'의 내면 심리까지 꿰뚫어 보고 서술한 ④가 (나)의 시점에 가장 잘 들어맞는다. [답] ④

[오답피하기] ①, ② 1인칭 시점이므로 적절하지 않다. ③ 3인칭 관찰자 시점이므로 적절하지 않다. ⑤ '특이감을 맛보고 있었는지도 모른다'고 추정함으로써 서술자가 '사내'의 심리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처럼 서술했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 **생각하자**

와! 이건 진짜 제일 중요한 문제!

소설가 구보씨 일일이 전지적 작가시점(3인칭 시점)이지만, (가)처럼 특정인물(구보)의 시각으로 사건을 전개하고 있지. 그래서 ㉠처럼 초점화자로 서술한다는 거야! 엄청 중요해!! 이건 진짜 현대소설에서 매번 출제되는 문제니까 꼭 이해하도록!

10. **추론적 사고(다른 상황에 적용하기)**

정답해설 : 이 글에서 '구보'는 원고료가 얼마나 되는지 묻는 '최 군'의 태도에 대해 불쾌감을 느끼고 있지만, '최 군'처럼 모든 것을 돈으로만 따지려 하는 사람들의 태도를 바꾸려고 소설을 쓰고 있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⑤는 이 글에 나타난 '구보'의 태도와 어울리지 않는 대화이다. [답] ⑤

[오답피하기] ① 이 글에서 '사내'는 예술 작품 자체보다 그 작품을 쓴 작가와 자기와의 관계에 더 관심이 많은 인물로 그려지고 있으므로 적절한 대화이다. ② 이 글에서 '최 군'은 당시에 큰 인기를 얻었던 장편 소설에 대해 걸작이라고 생각하며 구보의 동의를 구하는 인물로 그려지고 있으므로 적절한 대화이다. ③ 이 글에서 '구보'는 '최 군'이 말하는 작품들이 좋은 작품이라고 동의하지 않으면서 마지못해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그려지고 있으므로 ③처럼 말하는 것도 이 글에 나타난 '구보'의 태도와 어울리는 대화라 할 수 있다. ④ 이 글에서 '최 군'이 원고료에 관심을 드러내는 인물로 그려지고 있으므로 ④처럼 그림의 가격에 관심을 보이는 것도 이 글에 나타난 '최 군'의 태도와 어울리는 대화라 할 수 있다.

★ **생각하자**

발문에 추론으로 나와 있지만, 내용일치로 풀어버린다. 다만, 내용일치 나오면 선택지가 지문 순서대로 라는 거 잊지 말자!